

GLOBAL CENTER NEWS

독일 베를린 경제 사절단 조찬 미팅



협회 글로벌지원센터 및 INKE 사무국은 지난 4일 독일 베를린 경제사절단과 조찬 미팅을 가졌다.

베를린 주정부 산업장관을 단장으로 관련 기관장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이번 경제사절단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한했다. 경제사절단은 정부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독일과 비즈니스 연계가 있는 기업들을 방문하고 독일(베를린)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조찬미팅에서 양측은 독일과 한국의 신산업 정책 및 현황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돈독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과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동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 'Venturekorea 2003' 과 'INKE SPRING 2003' 을 통해 협회 글로벌지원센터 및 INKE 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BDC(베를린 경제진흥공사)도 경제사절단에 참가, 독일 및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타진해 오는 등 한국 신산업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BBDC(Berlin Business Development Center)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산업, 특히 기술분야의 투자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베를린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제휴, 판로개척, 기업 진출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INKE 호주 의장 협회 방문

신임 INKE 호주 의장(김상범 지사장, K Tech Australia) 일행이 지난 10월 31일 향후 INKE 호주 지부 운영 방향 및 국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협회를 방문했다.

호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장 경제력 부문 5위를 차지하며 시장의 유연성, 고성장, 저인플레이, 저금리를 바탕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신 산업국가로 자동차, 기계, 전자 장비를 비롯해 과학의료 장비와 통신, 소프트웨어, 우주공학제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도의 통신 기반 하에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전세계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김의장은 호주 내의 한인 벤처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산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산업 관련 호주 정부기관 및 산업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